

## “내일도 인쇄기는 돌 것이다”

흔히 인류의 3대 발명품으로 인쇄술, 화약, 나침반을 꼽는다. 그런데 이 세가지 가운데에서도 인류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쇄를 선정하는데 별 이의가 없는 듯 하다. 인류가 문명된 삶을 누리게 된 것도 인쇄에 의한 지식 보편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의 척도로서 인쇄술을 내세우는 것 역시 이러한 뜻에서일 것이다.

전 세계사를 통한 지적 혁명이 인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평생 인쇄, 출판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전영표 박사는 최근 펴낸 저서에서 '마치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우리가 살 듯이 모든 간행물이 인쇄에 의해 탄생되고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그 매체 자체만을 운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서구의 문예부흥도 인쇄기술의 발전에서 기인했음을 상기해야만 할 것이다. 인쇄술의 발명이야말로 사회를 개혁시킨 하나의 혁명주체라 할 수 있다. 인류사상 문명과 문화에 불을 붙인 매체로서 인쇄 이상의 것을 더 찾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 인쇄의 문화적 상위개념을 정의했다.

전 박사는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뉴미디어가 인쇄문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인쇄문화의 원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내일도 인쇄기는 돌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선언했다.

사실 인쇄는 문화의 뿌리이며 지식산



“

최근 출판계 일각에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률명에서 인쇄를 빼낸 '출판진흥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인쇄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업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쇄와 출판은 '입술과 이의 관계'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내 인쇄인이나 출판인들은 오랜기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수년전 인쇄, 출판업계가 독자적으로 진흥법제정을 추진하다가 서로의 문제

점과 공통점을 찾는 노력과 함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위해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에 힘을 모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동법은 2003년 2월27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는데 인쇄업계에서는 불만과 아쉬움이 많았으나 점진적인 지원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출판계 일각에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률명에서 인쇄를 빼낸 '출판진흥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인쇄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주장이 '출판의 하위부문인 인쇄를 법률명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쇄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인쇄를 출판과 비교해서 종속개념이나 '하위부문'이라고 보는 시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반자적인 문화파트너 관계를 밀등부터 흔드는 일이 아닌가 염려하는 인쇄인들의 의심의 눈길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간에 인쇄인들과 출판인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의 골이 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두뇌들이 모여있는 출판업계에서 인쇄를 상처내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예상되지만 세상이 하도 급변하기 때문에 그저 가슴 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오세익 · 편집주간)